



[산업] LG전자 '깜짝 선방' 생활가전 왕좌 수성 06



Economy

코스피	2164.17 (-23.76)	코스닥	759.16 (-0.74)
금리 (미국 3년)	0.846 (-0.006)	환율 (원/달러)	1195.70 (-0.10) (7일)

정의선, 이재용-구광모 이어 최태원과 회동... '전기차 동맹' 퍼즐 완성

'배터리'로 뭉친 재계 빅4, 미래차 強國 성큼

정의선, 알버트 비어만 등 경영진 서산 SK 배터리 생산공장 방문 배터리·충전인프라 확대 등 논의 "최고 기술력 보유사 협업 확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배터리 회동'을 진행하면서 한국 전기차 동맹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앞서 지난 5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현대차-배터리 3사(삼성SDI·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회동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향후 어느 기업과 손을잡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알버트 비어만 사장, 기획조정실 김결 사장, 상품담당 서보신 사장,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 등은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오른쪽)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기아차 니로EV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현대차

충남 서산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했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 사장, SK(주) 장동현 사장, SK이노베이션 지동섭 배터리사업대표 등 SK그룹 경영진이 현대차그룹 경영진을 맞았다.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 양사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등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고에너지밀도, 급속충전, 리튬-메탈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전력반도체와 경량 신소재, 배터리 대어·교환 등 서비스 플랫폼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SK 주유소와 충전소 공간을 활용해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

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미래 배터리, 신기술 개발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대차그룹은 인간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고 인류를 위한 혁신과 진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우리 임직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이며,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SK이노베이션 서산 공장 내 니로 전기차에 공급하는 배터리 셀의 조립 라인을 둘러봤다. 2012년 준공한 서산공장은 연 4.7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생산규모를 갖춘 곳이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현대·기아차가 생산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와 기아차의 니로, 쏘울 EV 등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적용하고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스1

三電 '깜짝실적' 영업이익 8.1조 시장예측 넘어서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위기를 정면 돌파하며 예상 외로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실적 상승세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액 52조원에 영업이익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잠정 공시했다. <관련기사 3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56조1271억원)보다는 약 7% 가량 떨어졌다. 전분기(55조3300억원)보다도 6% 가량 적은 수치다. 글로벌 코로나 섯다운 여파에 따른 현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조5971억원)보다 22% 이상 크게 증가했다. 전분기(6조4500억원)보다도 훨씬 높은 성적이다.

특히 당초 시장 전망치 평균인 6조5385보다도 크게 높은 실적을 달성해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도 2018년 4분기(24.2%) 이후 가장 높은 15.6%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언택트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스마트폰 등 세트 부문에서도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건조기와 의류관리기 등 신가전 부문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아이폰 판매 부진에 따른 OLED 패널 공급 축소에 따른 보상을 받아 일회성 이익도 약 9000억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엇갈린다.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가격 하락 등 약재가 감지되고 있는 반면, 세트 부문에서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제품 출시와 시장 회복 등으로 성장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크고, 미중 갈등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하반기 실적 호조를 장담할 수단은 없다"며 "3분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할 지, 코로나 등으로 인해 다시 상황이 악화될 지 갈림길에서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김재용 기자 juk@



유동성 위기 대한항공, 극복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대한항공이 7일 이사회를 열고 기내식·면세점 사업부 매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연합뉴스

기존 AI 뛰어넘는 '양자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KAIST 이준구 교수 연구팀 복잡한 데이터 양자 기계학습 매우 적은 계산량으로 연산 가능

KAIST 전기·전자공학부 및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IT인력양성연구센터 이준구 교수 연구팀이 비선형 양자 기계학습 AI 알고리즘을 개발해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양자 기계학습이 가능해졌다.

양자 인공지능은 양자컴퓨터 발전과 함께 현재의 인공지능을 앞설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으나, 연산방법이 전혀 달라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의 개발

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양자컴퓨터는 본질적으로 일차방정식을 잘 푸는 선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비선형적 기계학습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교수팀이 개발한 양자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에 있어 매우 적은 계산량으로 연산이 가능해 대규모 계산량이 필요한 현재의 AI 기술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교수팀은 독일 및 남아공 연구팀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학습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양자 정보로 생성한 후 양자 정보의 병렬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양자포킹 기술과 간단한 양자 측정기술을 조합해 양자 데이터 간 유사성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비선형 커널 기반의 지도학습을 구현하는 양자 알고리즘 체계를 만들었다. 이후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제 양자컴퓨터에서 양자 지도학습을 실제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

KAIST 박경덕 연구교수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npj Quantum Information) 5월 6권에 게재됐다.

기계학습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을 구분해

분류하는 것인데, 개나 고양이로 분류하는 작업에서 입과 귀의 특징으로만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기 쉽지 않다면 새로운 결정 경계를 찾기 위해 특징에 관한 정보 공간 차원을 확장해야 하는데 이 때 비선형 커널 기술이 필요해진다. 또 양자컴퓨팅은 고전 컴퓨터와는 달리 큐비트(양자컴퓨팅 정보처리의 기본 단위) 개수에 따라 정보공간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차원 정보처리에 있어 기하급수적으로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김재용 기자 juk@